

금호타이어 도급화 철화... 노사갈등 해소되나

25일 노사 특별협약서 결정 노, 파업 철화·정상조업 검토 사, 분신 대의원 유가족 지원

금호타이어가 노조 대의원 분신으로 논란이 된 48개 직무 도급화를 전격 철회하기로 했다. 노조는 부분파업을 풀고 정상조업을 검토하는 등 노사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맞게 됐다. '근로자 사망 사고'에 따른 노사 갈등을 빠르게 봉합하기 위한 금호타이어의 전향적인 조치로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6일 발생한 노조대의원 김모(45)씨 분신 사망과 노조의 부분파업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25일 밤 광주공장서 열린 2차 특별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48개 직무에 대한 도급화를 전격 철회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철회된 48개 직무는 모두 숨진 김씨가生前에 일했던 스프레이 운반직으로, 광주공장이 28개 그리고 곡성공장이 20개다. 금호타이어는 특별협약에서 노조에 고인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도급화에 대한 철회, 심리치료를 통한

유가족의 안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회사의 입장을 노측에 전달했다.

회사가 추진했던 도급화는 지난 2010년부터 노사간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해 온 것이다. 올해 역시 노사간 협의를 운영하며 원만하게 마지막 도급화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분신 여파로 다시 노사간 쟁점이 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애도하고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고려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고 유가족이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아직 협상이 진행중이고 유가족 배상 등 현안도 남아 있어 정상조업 문제는 좀 더 논의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지난 24일부터 사흘째 부분 파업중이다.

이에 따라 최장기 임금단체교섭 타결 1개월 만에 발생한 부분파업으로 장기화될 뻔 했던 노사갈등은 사측의 도급화 철회로 빠르게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인테리어 소품으로 봄 기운 물씬
봄을 앞두고 집 안에 봄의 생기를 불어넣는 인테리어 소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백화점을 찾은 한 고객이 매장에 진열된 화병과 액자 등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93.08 (+2.61) 금리 (국고채 3년) 2.04%
- ▲ 코스닥 617.08 (+0.51) ▼ 환율 (USD) 1097.20원 (-1.80)



산이건설, 화순에 '산이고운아파트' 406가구 공급

쾌적한 환경 4-Bay 구조

오늘 견본주택 개관·분양

광주 동구에서 승용차로 10분 거리에 화순 '산이고운아파트'가 들어선다.

27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을 접수하는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75㎡ 총 406가구로 이뤄졌다. 산이고운은 자연환경의 쾌적함을 누릴 수 있는 단지 설계가 돋보인다. 전 가구를 정남향 배치하고, 판상형 4-Bay 구조로 개방감을 최대화시킨 것이 장점이 다.

단지 인근에는 남산공원과 만연산, 평동산 등 쾌적한 자연환경이 갖춰졌으며 화순초·중·고, 화순제일초·중, 전남기술고등학교, 능주고 등이 가깝고, 공공도서관 이용이 편리해 자녀 교육

에도 좋은 환경을 갖췄다. 또 하나로마트, 롯데슈퍼 등 쇼핑시설이 가깝고 하나오피스텔, 화순구청, 화순전남대병원 등이 근거리에서 편리하다.

광주와 접근성도 탁월하다. 제2순환도로와 인접해 있어 광주 도심과 나주 혁신도시 등으로 진출입이 쉽고, 동구 월남지구까지 5분, 동구 학동까지 10분이면 닿는다.

산이건설 관계자는 "화순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4-Bay 혁신 평면을 선보이겠다"며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화순지역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라 보니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 산이고운의 견본주택은 화순삼천리교차로 롯데슈퍼 인근에 마련됐다. 문의(061-375-2200).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이원태 부회장 김성산 부회장 이덕연 대표이사 김현철 대표이사

금호아시아나그룹 부회장 이원태·김성산씨

이덕연 금호고속 대표이사

김현철 금호터미널 대표이사

55명 임원 승진 인사 단행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이 3월1일자로 부회장 2명과 사장 1명, 대표이사 5명 등 총 55명의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원태 그룹 상근고문과 김성산 금호고속 사장이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했으며 이덕연 금호고속 부사장은 금호고속 대표이사 부사장에, 김현철 금호터미널 부사장은 금호터미널 대표이사 부사장에 각각 선임됐다.

이원태(70) 금호아시아나그룹 신임 부회장은 1972년 금호석유화학에 입사해 40여년 간 그룹 상근고문과 금호산업 고속사업부 사장, 금호종합금융 이사 등 요직을 거쳤다.

나주 출신 김성산(69) 신임 부회장은 1973년 광주고속에 입사, 1990년 금호건설 이사를 거쳐 금호리조트 사장, 금호터미널 사장 등 그룹 주요 직책을 거쳤으며 2006년부터 금호고속 사장을 역임했다. '고객행복 경영'으로 금호고속을 국내 최대 운송업체로 성장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화순 출신 이덕연(59) 금호고속 대표이사는 1984년 금호고속에 들어와 2006년 고속자원담당 상무로 임원인 뒤 지난해 금호고속 총괄 부사장에 임명됐다.

김현철 금호터미널(54) 대표이사는 1986년 금호그룹 비서실에 입사, 그룹 홍보실과 금호고속 관리팀 등을 거쳤다. 탁월한 진화력과 업무추진력을 인정받아

2006년 금호터미널 이사로 승진한 뒤 7년 만에 부사장에 올랐으며, 오는 3월부터는 대표이사로서 경영 일선에 서게 됐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금호산업 인수전 흥행에 주가 급등

대기업 사모펀드 연계 참여 가능성

금호산업 인수와 관련, 신세계가 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금호산업 인수희망서를 제출하자 다른 대기업의 가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아시아항공'에 군침을 흘리면서도 전면에서 나서지 않았던 다른 대기업들이 사모펀드(PEF)와 물밑 짝짓기를 통해 인수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력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제일모직과 삼성 SDI, 호텔신라, 롯데쇼핑, CJ그룹, 에코그룹, SK그룹 등의 대기업그룹은 금호산업 M&A(인수·합병) 전면에서 나서지 않았는데 신세계그룹이 단독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대기업그룹도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되사는데 힘을 쏟는 상황이라서 다른 대기업 그룹은 관심이 있어도 전면에서 나서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예상 외로 신세계가 뛰어난 만큼 다른 대기업그룹도 경쟁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산업 인수전 신세계 등의 참여로 흥행하면서 26일 주식시장에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광주신세계 등 관련 종목이 일제히 급등했다. 이날 개장 직후 금호산업은 상한가로 직행해 3만300원을 기록한 뒤 폐장까지 상한가를 유지했다. 아시아나항공도 9980원으로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전날보다 11.74% 오른 9900원에 거래됐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효성, 탄소복합재 차량용 시트 개발자에 원단 지원

탄소·아라미드 등 첨단 섬유

효성이 탄소복합재 차량용 시트를 개발한 이소민씨에게 탄소섬유와 아라미드 섬유 등 원단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수제자동차 제작전문가인 이씨는 지난해 11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씨는 3년짜리 첨단소재 전기자동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년차에 전기자동차를, 2년차에 리모트 컨트롤을, 3년차에 무인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내부 프레임용 효성의 탄소섬유로 구

성하고, 실내장식을 효성의 아라미드 섬유로 보강하겠다고 이씨는 소개했다.

효성은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탄소섬유와 아라미드 섬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효성의 탄소섬유 사업을 관장하는 조현상 산업자재PG장(부사장)은 "탄소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혁신 아이디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탄소섬유는 탄소가 92% 이상 함유된 섬유로, 철보다 무게가 4분의 1 수준으로 가볍지만, 강도는 10배, 탄성은 7배 높아 내부식성·전도성·내열성이 높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남기발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강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고령직 결혼정보회사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술신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